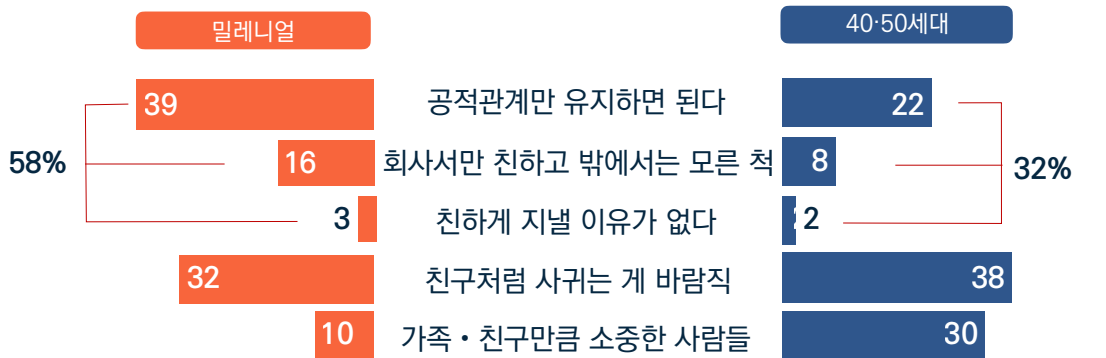


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~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현재 20~30대 연령층을 일컫는데, 최근 매일경제신문에서 밀레니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는데, [넘버즈]에서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

1 밀레니얼 직장인, '회사 동료는 공적 관계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' 58%

-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회사 동료 인식에 관해 묻은 결과, 회사 동료를 '공적인 관계' 39%, '회사서만 아는 척, 밖에서는 모른 척' 16%, '친하게 지낼 이유 없다' 3% 등 5명 중 3명 가까이(58%)가 공적인 관계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반면, 40·50대는 '친구 관계'(38%), '가족·친구만큼 소중한 사람'(30%)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밀레니얼 대비 회사 동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

[그림] 회사 동료에 대한 인식(밀레니얼 세대 vs 40·50 세대)



*자료 출처 : 매일경제, 한국리서치, '밀레니얼 직장인 리포트, 퇴근 후 한잔 부장님 소통... 낯엔 뭐하고 밀레니얼엔 두통', 2019.11.08. (100인 이상 기업 다니는 20세 이상 회사원, 1558명), <https://www.mk.co.kr/news/home/view/2019/11/907098/>

● 밀레니얼 직장인, 회사 생활 최우선 가치 '나를 위한 투자'

- 밀레니얼 직장인이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 가치로 두는 것으로 '나를 위한 투자 가치'로 꼽은 반면, 40대는 '월급', 50대 이상은 '자부심'으로 응답하여 연령 간 인식 차이가 큼

[그림] 회사 생활 최우선 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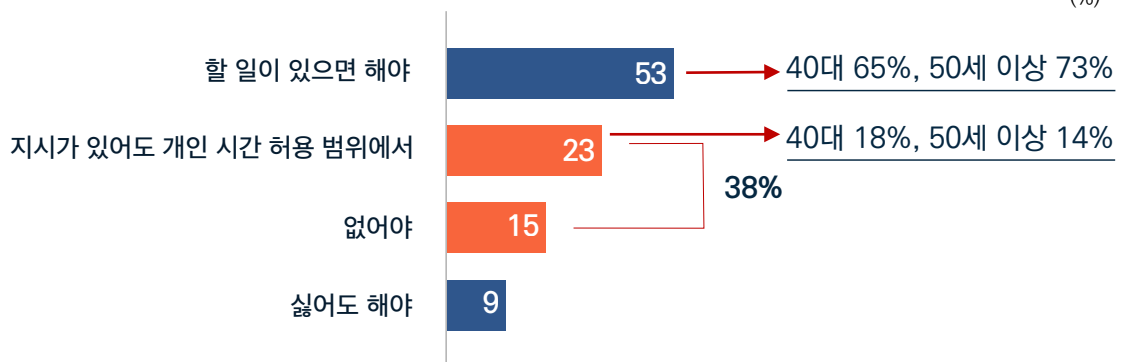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매일경제, 한국리서치, '밀레니얼 직장인 리포트, 아군 시키면 난리라는 부장의 편견, 신입사원은 억울하죠', 2019.11.03. (100인 이상 기업 다니는 20세 이상 회사원, 1558명), <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19/11/902814/>

● 밀레니얼 직장인,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 38%

- 밀레니얼 직장인들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 ‘지시가 있어도 개인 시간 허용 범위내에서’ 23%, ‘없어야’ 15% 등 부정적 인식이 38%로 5명 중 2명 정도로 나타남
- 반면 ‘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’는 순응적 태도는 선배 직장인(40대 65%, 50세 이상 73%)보다 밀레니얼 세대(53%)가 훨씬 낮음

[그림]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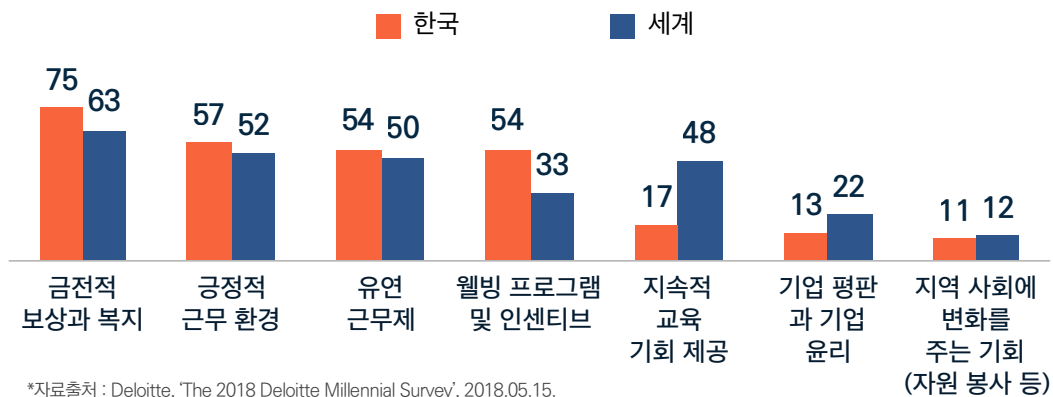


2

밀레니얼의 직장 선택 기준 10명 중 8명 정도는 ‘금전적 보상과 복지’

-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딜로이트가 전 세계 36개국 밀레니얼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, 한국 밀레니얼의 직장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, ‘금전적 보상과 복지’ 75%, ‘긍정적인 근무 환경’ 57%, ‘유연 근무제’ 54%, ‘웰빙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’ 5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전 세계 밀레니얼과 비교하면 한국 밀레니얼은 연봉과 인센티브, 근무 환경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, 기업 평판과 기업 윤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함

[그림]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인식의 변화(‘그렇다’ 비율, 한국 vs 세계)



*자료출처 : Deloitte, 'The 2018 Deloitte Millennial Survey', 2018.05.15.
(전 세계 36개국, 밀레니얼(1983~1994년생) 및 Z세대(1995~2002년생), 12299명, 한국은 313명, 대면 조사)

● 한국의 밀레니얼 직장인, ‘미래 불안’과 ‘현재 불만’ 공존함

- 한국의 밀레니얼 직장인의 절반 이상(52%)이 ‘2년 이내 직장을 떠날 것’이라고 응답하였는데, 이는 1년 전 42%에서 무려 10%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
- 반면, ‘5년 뒤에도 잔류할 것’에는 2018년(27%) 보다 높아진 32%로 나타남. 이처럼 상반된 양상을 보인 이유는 낮은 고용의 질과 불안정한 구직 형태에 대한 불만으로 2년 내 퇴사 의향은 늘어난 반면,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현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 인식이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
[그림]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현 직장 퇴사 및 잔류 의사(2018 vs 2019) (%)



*자료출처 : Deloitte, '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19', 2019.05.21.
 (전 세계 42개국, 밀레니얼(1983~1994년생) 및 Z세대(1995~2002년생), 116425명, 한국은 302명, 대면 조사)